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	
		배포일시	2018. 11. 27.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공공주택 총괄과	담당자	·과장 이병훈, 사무관 신동하 ·☎ (044) 201-4539, 4517		
보도일시		2018년 11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원도심 활성화로 도시활력 깨운다...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 27일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업무협약...유휴부지 활용 청년 주거공간 조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구청역사를 복합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 우선 낡은 역사를 현대화하고 일부 유휴부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.
- 1981년에 건립된 현 역사는 금천구청사 이전 이후 꾸준한 주변지역 개발로 이용인구가 증가하였으나, 준공 이후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곳이다.
- 이에 국토부에서는 금천구청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.
- 그 첫 단추로 11.27(화) 금천구청에서 금천구-한국토지주택공사-한국철도공사 간 「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하고,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.
- 또한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통해 역사 주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.

- 금천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, 철도역사 개축과 함께 복합 건설되는 주택에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함께 건설하고, G밸리와 연계한 창업자나 IT산업과 같은 금천구의 대표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.
 - 향후 금천구청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사항 지원,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개발구상 수립 용역 발주 및 주택 공급,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사 현대화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은 역사 유희부지를 활용한 지자체와 국토부 산하기관 간의 훌륭한 협업 사례인 만큼 추후 산하기관 간에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”이라면서,
 - “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청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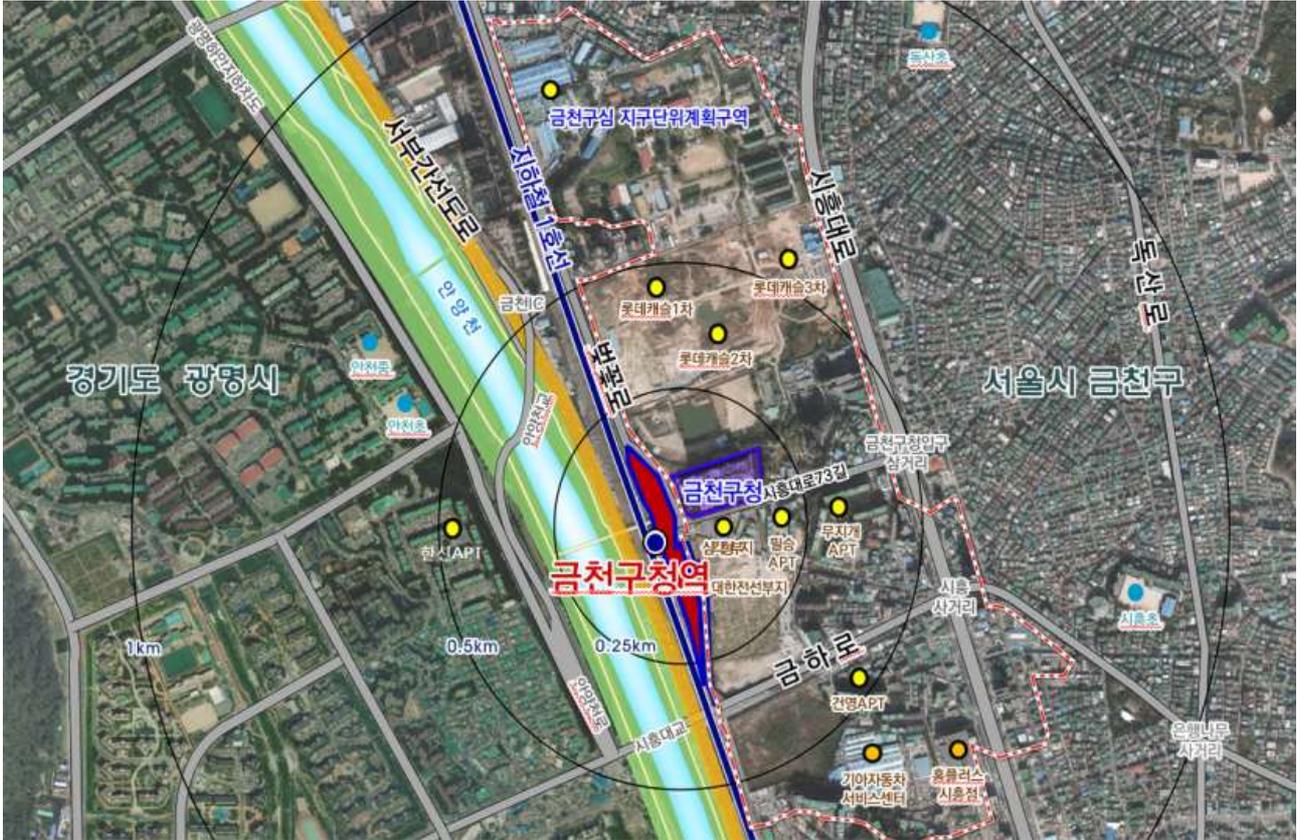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신동하 사무관(☎ 044-201-4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금천구청역 위치도 및 개요

□ 위치도



□ 철도역사 개요 및 현황사진

- 위치 :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-192번지 일원
- 면적 : 약 18천m²
- 이용현황 : 금천구청 역사, 폐저유조, 신호계전기실 등
- 준공년도 : 1981년 (37년경과)
- 일평균 승하차인원 : 2만3천명 ('17.12월 기준)

